

코오롱, 카이스트와 미래사업 발굴

공동으로 고수익 사업 개발 ... 투명전극소재 · 헬스케어 원천기술 확보

코오롱은 9월6일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KAIST) 전자정보공학동에서 <코오롱-카이스트 라이프스타일 이노베이션(LSI) 센터>를 개소했다.

양측은 그룹 미래 신수종사업 발굴과 육성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개소식에는 이웅열 회장을 비롯해 계열사의 김남수, 배영호, 박동문 사장 등 주요 임원과 카이스트 서남표 총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센터를 통해 공동 연구개발과 경진대회, 워크샵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면서 코오롱의 미래사업으로서 앞으로 5-10년간 시장진입이 가능하고 성장성이 높은 고수익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코오롱은 LSI 센터 개소에 앞서 미래 메가트렌드와 그룹의 비전에 들어맞는 미래 신수종 사업 발굴을 위해 계열사별로 추진과제에 대한 수요조사를 수행했다.

이를 통해 ▲투명전극 소재 ▲압전소자 ▲헬스케어 ▲빛을 이용한 뇌질환 치료 ▲차세대 햅틱 유저 인터페이스 등 5개 미래사업을 선정하고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웅열 회장은 “코오롱이 보유한 강점을 LSI 센터의 연구에 접목해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미래를 선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코오롱은 <미래전략기술원>도 설립해 체계적으로 기술역량을 확보하고 성과를 그룹 전체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LSI 센터는 지주사인 코오롱과 코오롱인더스트리, 코오롱글로벌 3사가 공동출자해 설립했으며, 그룹은 1단계로 5년간 7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9/07>